



2026. 5.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손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6. 5. 3.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상실의 자리를 소망으로 채우는 '헤세드'의 사명

사랑하는 순장님, 어느덧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시애틀의 산과 들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번 5월,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될 룯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흥년과 상실을 경험했던 나오미와 룯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인자하심)'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며, 우리 순장님들이 돌보는 순원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순장님, 때로는 순원들의 이름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영적 흥년의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듯, 우리가 순모임이라는 은혜의 밭을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순장님의 따뜻한 경청과 기도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룯기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5월 큐티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전서 9장에 이르러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쏟으시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절제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 프리뷰 시간이 우리 순장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사역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장님은 혼자자 아닙니다. 저와 목회자들이 순장님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사랑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룯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바울처럼 뜨겁게 5월 한 달을 달려갑시다.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장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순장님과 함께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5월 1일 본문, P174 |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선교사 짐 엘리엇이 순교하자,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남편을 죽인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룻기 1:1-14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절)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삿21:25). 둘째, 백성이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다시 죄를 범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룻기는 영적 무질서와 불순종 등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지 보여 줍니다. 지리적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1절)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이트'(집)와 '레헴'(떡)의 합성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떡(먹을 것이) 없어서 떡집(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가족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떡집(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십니다. 룻기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 주권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결국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 살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1-5절)

2 < 관찰과 묵상 나오미가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

3 < 적용과 나눔 삶에서 상실이나 실패를 마주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 Review the Text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길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없고,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살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돌이킴이 있는 곳에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Pray through the Text

- 1 암담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 2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0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5월 1일 본문, P174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선교사 짐 엘리엇이 순교하자,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남편을 죽인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룻기 1:1-14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of Bethlehem in Judah went to sojourn in the country of Moab, he and his wife and his two sons.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이던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2 The name of the man was Elimelech and the name of his wife Naomi, and the names of his two sons were Mahlon and Chilion. They were Ephrathites from Bethlehem in Judah. They went into the country of Moab and remained there.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3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3 But Elimelech, the husband of Naomi, died, and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년쯤에	4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4 These took Moabite wives; the name of the one was Orpah and the name of the other Ruth. They lived there about ten years,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겨졌습니다.	5 and both Mahlon and Chilion died, so that the woman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외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 오려 하여	6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외개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o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fields of Moab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and given them food.

7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이들이 아직 있느냐

12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

13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트는 그를 붙잡았더라

7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8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9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10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11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이들이 내게 더 있기도 하다 면 모를까.”

12내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들을 낳는다고 해도

13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었느냐? 아니다. 내 딸들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14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7 So she set out from the place where she was with her two daughters-in-law, and they went on the way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8 But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return each of you to her mother’s house.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9 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rest, each of you in the house of 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10 And they said to her, “No, we will return with you to your people.”

11 But Naomi said, “Turn back, my daughters; why will you go with me? Have I yet sons in my womb that they may become your husbands?”

12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If I should say I have hope, even if I should have a husband this night and should bear sons,

13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 No, my daughters, for it is exceedingly bitter to me for your sake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gone out against me.”

14 Then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ung to her.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절)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삿21:25). 둘째, 백성이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다시 죄를 범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룻기는 영적 무질서와 불순종 등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지 보여 줍니다.

지리적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1절)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이트’(집)와 ‘레헴’(떡)의 합성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떡(먹을 것이) 없어서 떡집(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가족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레헴)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떡집(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십니다. 룻기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 주권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결국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드러냅니다.

1 < 관찰과 묵상 >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 살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1-5절)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해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의 주인공 엘리멜렉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의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언약 계승의 단절을 의미하는 만큼, 이 일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2 < 관찰과 묵상 > 나오미가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파카드)는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흉년이 끝났다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편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문'과 '돌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3 < 적용과 나눔 > 삶에서 상실이나 실패를 마주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의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섰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길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없고,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살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돌이킴이 있는 곳에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1. 암담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절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1절의 기근은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지중해에서 수분을 머금은 기류가 이스라엘로 불어와 요르단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류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지형은 점차 높아집니다. 때로는 상당한 수분을 지닌 구름이 베들레헴이 위치한 이스라엘의 산지를 지나면서도 비를 내리지 않고, 더 높은 요르단 고원에 이르러서야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모압은 바로 이 고원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text does not address it, but it is most likely that the famine (1:1) was because of drought. Weather systems carrying moisture blow in to Israel from the Mediterranean Sea and continue on into Jordan. As these systems move inland, the elevation of the land generally increases until the Jordan plateau is reached. At times clouds carrying significant moisture pass over the hills of Israel, where Bethlehem is located, and are not forced to release their rain until reaching the higher elevations of the Jordan plateau, where Moab was located.”

2-5절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나오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 재혼이나 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1:11 - 12 참고). 과부는 종종 착취당하거나(사 10:2), 무시되고 방치되기도 했습니다(사 1:23). 물론 하나님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셨지만(신 14:28 - 29; 24:19 - 21; 26:12 - 13),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미래는 구절과 빈곤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컸으며, 모압에는 친족도 없어 더욱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Naomi’s new situation without a husband or children was difficult. Not only was she depressed as a result of these losses, she was in distress economically in a society that offered women no real independent professions apart from prostitution. As a mother of grown children, her age made both remarriage and the possibility of bearing any more children in her husband’s name impossibilities (cf. 1:11-12). Widows were often taken advantage of (Isa 10:2) or ignored and neglected (Isa 1:23), even though the Lord gave special commands regarding them and othe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e.g., Deut 14:28-29; 24:19-21; 26:12-13). Naomi’s bleak future appeared to be only begging and poverty in her increasing age. Further, she was isolated from family, lacking any blood relatives in Moab.”

8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조언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비록 자신은 혼자 길을 떠나야 했지만, 각자는 자기 고향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익숙함,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지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었을 것입니다. 모압 사회에서 과부의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 외국 남성보다 모압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오미의 조언은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며느리들과 자신의 미래를 향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Naomi’s advice that the girls return to their home in Moab was grounded in the realities of their situation. It is likely she saw her advice as advantageous for all of them in the long run. Though she would have to make the journey alone, each of them would find support in a family network in their own homeland. The familiarity of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strength of family were their best chance for getting by in these dire straits. Although we do not know anything directly regarding Moabite views about remarrying widows, it is not unlikely that Moabite women would be more attractive as spouses to Moabite men than to foreign men for the simple reason that people, on average, choose mates from backgrounds similar to their own. Naomi’s advice was based on a sound assessment of the situation and a concern for the best future for her daughters-in-law and herself.”

13절 여기서 말하는 “아픈 마음(쓴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며느리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고, 나오미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의 삶이 그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앞선 문맥이 재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즉, 며느리들은 아직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기회가 남아 있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남아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권합니다.

“Naomi’s first comment, regarding her bitterness (1:13), may be understood as saying that she was sorry that Ruth and Orpah had to suffer the calamity that had come upon her (cf. REB, “for your sakes I feel bitter”), or that the bitterness of remaining tied to Naomi’s family is “too much for [them] to bear” (NET), or that Naomi’s life is more bitter than theirs—that is, they have other alternatives and need not face the hardship she was facing. Because Naomi’s statements in 1:11–13a have focused on the potential of remarriage for the two women, the last option seems best. Like her earlier blessing on their potential remarriage (1:9), Naomi’s words here suggest that they had not lost everything as she had; they had a way out, a chance to start again and find happiness. Her lot was more bitter than theirs, and Naomi’s advice was that they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remained for them.”

(위의 주해 내용은 Jason Driesbach, Ruth: Cornerstone Commentary 에서 발췌함)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5, 5월 28일 본문, P182 |

본문의 핵심 Focus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양한 사람의 형편을 존중하며 그 자리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 선교를 위해 중국인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느 나라의 문화나 음식을 체험해 보고 싶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9:19-27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린도전서 8-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들어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성도 일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며 이를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약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운동 경기 비용을 들어 자신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훈련하는지를 말합니다. 운동 경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창 던지기, 달리기, 격투기 등의 다양한 종목이 개최되었고, 선수들은 승리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절제하며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에 비유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바울은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에게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23절)

.....

2 < 관찰과 묵상 >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27절)

.....

3 < 적용과 나눔 >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된 바울처럼, 나와 우리 공동체는 복음이 필요한 여러 대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나누어 보세요.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유 대신 불편을 선택했고, 자신을 절제하며 복음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고집하면 복음은 우리 삶에서 힘을 잃지만,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면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자유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저의 고집과 편안함의 틀을 깨뜨리며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 2 주님의 칭찬과 예비된 상을 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5, 5월 28일 본문, P182

본문의 핵심 Focus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양한 사람의 형편을 존중하며 그 자리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 선교를 위해 중국인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느 나라의 문화나 음식을 체험해 보고 싶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9:19-27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p>19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p> <p>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p> <p>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p> <p>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p> <p>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p>	<p>19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p> <p>20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p> <p>21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p> <p>22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p> <p>23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p>	<p>19 For though I am free from all, I have made myself a servant to all, that I might win more of them.</p> <p>20 To the Jews I became as a Jew, in order to win Jews. To those under the law I became as one under the law (though not being myself under the law) that I might win those under the law.</p> <p>21 To those outside the law I became as one outside the law (not being outside the law of God but under the law of Christ) that I might win those outside the law.</p> <p>22 To the weak I became weak, that I might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that by all means I might save some.</p> <p>23 I do it all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with them in its blessings.</p>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4 그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할것 달라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25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ay obtain it.

25 Every athlete exercises self-control in all things. They do it to receive a perishable wreath, but we an imperishable.

26 So I do not run aimlessly; I do not box as one beating the air.

27 But I discipline my body and keep it under control, lest after preaching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린도전서 8-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들어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성도 일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며 이를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운동 경기 비유를 들어 자신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훈련하는지를 말합니다. 운동 경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창 던지기, 달리기, 격투기 등의 다양한 종목이 개최되었고, 선수들은 승리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절제하며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에 비유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 < 관찰과 묵상 바울은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악한 자’에게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23절)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악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해설 바울에게는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믿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4절). 그러나 믿음이 악한 사람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기에, 믿음이 악한 성도들을 배려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13절; 10:27~28). 한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행 16:3). 그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2 < 적용과 나눔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27절)

복음을 전한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해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휘포피아조’입니다. 이는 ‘눈 아래를 치다’라는 의미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밑을 때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때리는 상대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3:14-15). 주의할 점은, 바울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한 선수와 같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3 < 적용과 나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된 바울처럼, 나와 우리 공동체는 복음이 필요한 여러 대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나누어 보세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나눔을 이끌어 주세요.

예시 “항상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했지만, 복음을 위해 상대의 속도와 방식에 맞추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의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유 대신 불편을 선택했고, 자신을 절제하며 복음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고집하면 복음은 우리 삶에서 힘을 잃지만,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면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자유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저의 고집과 편안함의 틀을 깨뜨리며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 2 주님의 칭찬과 예비된 상을 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9절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을 '강제로 맡겨진 사명'처럼 여기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섬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종으로 보는 관점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서 등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바울이 스스로 그 종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종됨'을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연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사명,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Paul explains why he views his apostolic calling as conscription. Though once a free man (and that meant something in his world), he lost that freedom by selling himself into slavery to Christ with a mandate to serve the world with the gospel. Viewing himself as a slave in this way, Paul is consistent with many other places in his writing (Rom 1:1; Gal 1:10; Titus 1:1), but viewing himself as initiating this enslavement is unique to this passage. He qualifies his enslavement with the single purpose that Christ had set over his life: to add people to the Christian community."

20절 바울은 자신의 한 가지 목적(영혼구원)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대상에게 적용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음식 규례와 같은 엄격한 유대인의 사회적 관습을 충분히 따를 수 있었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처음 들어가면 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의 절기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더 이상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이제 자신은 유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설명한 그의 신학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는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의 방식을 따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유대교로부터의 거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고, 복음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한 가지 목적,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Paul divides his single-purposed life into two platforms: Jews and Gentiles. For each, his single purpose morphs into different strategies. Because he was raised as a Jew, he was fully able to participate in the rigid social customs of the Jews involving a restrictive diet. He was also comfortable worshiping in Jewish synagogues, which Acts notes he did frequently when he first entered a city, including Corinth, and taking part in Jewish festivals. However, his purpose in doing so was no longer because he was Jewish nationality. In fact, with incredible clarity he asserts point-blank that he is under no obligation to Jewish law anymore, a stance that coincides with his carefully argued theology in Galatians and Romans. Christ nullified the law and released him from his obligation to it. He now practiced Judaism with people to make them more comfortable with hearing the gospel message. He wanted to remove any barriers (such as his own break from Judaism) that might blind Jews from the truth of the gospel. His single purpose to help them accept Christ drove this pragmatic choice.”

21절 바울은 두 번째 영역인 이방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맞추었던 것처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도 유대 관습을 내려놓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의 주장처럼, 그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돼지고기와 같은 유대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도 먹으며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이교적 신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이 따르는 단 하나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마 28:19-20; 막 16:15-16), 더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신 이 사랑의 법은(마 22:39 등), 바울 역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리로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롬 13:9; 갈 5:14). 야고보도 이를 “왕의 법” 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으로 설명합니다(약 2:8; 1:25).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자기희생적 사랑이 바로 이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전략까지 포함합니다.

“Paul explains his second platform. Parallel with the way he chose to relate socially to Jews, he was also fully comfortable with setting aside Jewish customs when relating to Gentiles. He certainly felt no compunction to force Jewish customs on them, as evidenced from his arguments in Galatians. Since Christ freed him from obligation to these Jewish laws, he was able to eat and socialize with Gentiles according to their customs, which involved eating pork and other things banned for Jews. This would also mean working and living under the canopy of idols and pagan gods in their cities that influence their legal and social behavior. He could do this because his single purpose was to bring them to Christ. There is only one law he obeys, Paul says in 9:21, “the law of Christ.” This may be the gospel mandate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evangelize, a fitting consideration in this context. More likely, however, Paul had in mind Christ’s law of loving one’s neighbor, extolled by Jesus as part of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repeated as the most basic principle of Christian behavior by Paul, as well as promoted by James as the “royal” law (Jas 2:8) and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In Galatians 6:2, the only other place Paul refers to “the law of Christ,” he stipulates that Christ’s model of self-sacrifice in bearing the burdens of another person fulfills this law. He had already appealed to love (8:1) and Christ’s sacrifice (8:11) as key principles in resolving this tension regarding idol meat. In this immediate context, loving nonbelievers,

whether Jewish or Gentile, not only leads to the desire to bring them the gospel but underlies strategies for how to do this, including the removal of unnecessary distractions that would hinder them from accepting the gospel's invitation to believe in Christ.

(위의 주해 내용은 William Baker, 1 Corinthians: Cornerstone Commentary 에서 발췌함)

5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주요 사역 일정

-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팀 리더십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소서.
-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 50기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성숙한 양육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양육강좌(사도신경 공부)를 통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통해 어머니들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학교 골프대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소서.
- 순들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 -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제자 삼는 마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소서. 부모님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 Coram Deo - 학생들이 5월 16일 Recharge (Jump up and down) 집회에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Up'의 경험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Down'의 고백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 NEXT - 시니어 수련회(4월 17 -19일)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후에도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교사들에게 힘과 인내를 주소서
- EW College -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 NeWave -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복음이 필요한 새로운 청년들의 발걸음을 뉴웨이브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